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20호 현대불교  
2009년 2월 25일(음력 2월 1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 지금 이 세상 전체를 한마음 속에서만이 구할 수 있어

오늘 셋째 일요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도반으로서 오늘은 실천공행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인간 자체가 첫째 왜냐 한다는 문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된다 보살이 된다 법신이 된다 이렇기 이전에 인간 자체가 왜냐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으로 들고 내는 것을 정(定)으로써 한자리에다 두고 들고 낸다면 정향(定香)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향부터 왜야 계향(戒香)도 역시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스님네들만 계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대해 주고, 돌아서 내 마음씨로 항상 돌아다니게 나오 보고 내 아픔으로 보고, 모든 것을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로 보고 그렇게 풀 한 포기도 남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럼으로써 그 지경이 생기고 해탈이 생기고 해탈지경(解脫見香)이 되죠.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은 없었지만 모르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몰라서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인과응보라는 그 엄청난 문제를 천차만별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고 넘어가는 말을 오늘은 수박에 비유해볼까요? 그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예가 있죠. 과거는 현실에 짙어지고 나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박 한 덩어리라면 그 수박 속에 씨가 있지 판 데 있었습니까? 어저께 수박을 심었더니 오늘의 수박에 그 씨가 도로 들어 있는 걸 모르고 말합니다. 그 수박씨가 씨가 되고 또 그 씨가 수박을 열리게 했기 때문에 수박씨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와 녀름과 수박, 이게 들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신다면 인간의 뿌리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나 인간의 뿌리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못 보듯이 그렇게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의 씨를, 내가 마음내키 이전에 과거 씨인데 그것을 불성이라고 하죠. 그 불성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니 바깥에서 찾아잡니까? 항상 안에 있는 수박씨와 같은 건데.

그러니 절대로 바깥에서 지식이나 학식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고, 한곳으로 들고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4시간을 다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하고 앉았어도 그것이 참선이 아니고 좌선이 아닙니다. 지금 땀땀 땀 땀 돌아가면서 사람이 터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가, 끝

는 진리가 첩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해드렸습니단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고 오직 꺼내는 것도 거기고, 넣는 것도 거기고, 들이는 것도 거기고 내는 것도 거기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내 몸이 증생들도 없을 것입니다. 혹성이라는 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것이 바로 화두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뒷받침이 돼 있어야만 되겠기에 말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개설 테니까요.

지난번에 그랬죠? 그 무슨 인연으로 병이 생겼으며 병은 어떻게 해야 낫느냐고 문수가 유마힐 거사한테 물었듯이 말입니다. 그 뜻에서 벌써 그랬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증생들이 나야 내 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직각적으로 내 몸으로부터 체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또 지혜가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뜻이 숨어져 있다는 얘기죠. 말로만 듣고 이론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 뒷면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문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방이 왜 비었으며 왜 시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마힐은, 여러분이 다 아시려라고 믿어요. 뭐 저는 무지렁이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것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니까 "모든 부처님 국토도 비어 있으며 외도나 마구니가 다 내 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빈 것도 아니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닌 그것은 어떠한 연고입니까?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까. 전부 빈 것도 아니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닌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누가 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문이기도 하고, 물론 말 잘하는 분들은 또 말도 잘하시겠지만 또 말을

함 없이 하시면 됩니다. 말이라는 건 귀신 방귀와 같으니깐요. 말은 하지 않되 하시면서, 종은 쳤는데 종소리만 낫지 종 친 사이가 없고, 그 종소리는 우르르 퍼졌는데 퍼진 사이도 없이 퍼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뜻을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활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돌아갈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비었다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

로니까 겁에 담을 물건은 겁에 담고 집시에 담을 물건은 집시에 담고, 대접에 담을 물건은 대접에 담고 이렇게 해야만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릇대로 물건을 요리해 해서 한데 떨어뜨리지 않고 차원에 따라서 담아준다는 뜻입니다. 밥을 한 솥 해서 담아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모르면 이게 자꾸 잊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가 터지면 즉, 물리가 터지면 전체가 거기 붙어 돌아가요. 따로따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수박이 따로 없듯이. 그러니까 물리가 터지면 모두가 한데 붙어 돌아가죠. 씨와 수박과 씨가 따로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과 물은 들어 아니나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느니라. 천차만별로 각각 있지만 한데 돌아가고, 한데 돌아가지만 각각 분리가 돼서 네 모습 다르고 내 모습 다르고 네 차원 다르고 내 차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놓고 자기가 그냥 천백 억화신 노릇을 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는 아축불이라고 띄어 상표를 붙여놨습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그게. 석가가 석가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처가 아니게요? 만약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아니죠. 그래서 띄어 아축불로 붙여놓고 서방정토에는 아미타불로 붙여놓았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마음입니다. 자기에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해가 뜰 때, 돌아서 동방에서 해가 뜨고 또 서방으로 가고, 서방은 동방이 되고 동방은 서방이 되고, 항상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돌아갈 때에, 서방에서 올 때는 남방을 통해서 동방으로 통하고, 동방에서 서방으로 갈 때는 북방을 통해서 서방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한쪽은 불

소식이 오고 다른 쪽은 가을로 가죠. 겨울로 간단

말입니다. 겨울잠 자러.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빠르리라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바세계엔 필로 이름을 붙여놨느냐 하면 관세음으로 붙여놨죠. 또 지천국에는 무엇으로 붙여놨느냐 지장으로 붙여놨고요. 그러니 자기가 이름을 자기 마음으로 붙여놓고 자기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움직여가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또 한편에는 문수를 놔놓고 한편에는 보현을 놔놨습니다. 그럼 이걸 누구겠습니까? 아까 수박 얘기 했죠? 씨와 수박이나 씨나 이것이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부처는 생각 내기 이전에 부처라고 보고요. 생각을 냈다 하면 그게 바로 문수입니다. 법신! 그럼 생각을 낸 것이 뭐냐? 바깥으로 나온 게 보현이요. 그래서 들고 내는 것도 보현이요, 모든 걸 보호해나가면서 화하는 것도 보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 내기 이전이요.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요 움직여줬다 하면 화신이요 보신이요. 여러분이 넘어졌으면, 어디 다리가 다쳤으면 "아이쿠!" 하고 여러분 손이 가서 털고 얼른 일어나지, 딴 사람이 털어주고, 딴 사람의 손이 와서 털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신이며, 그리고 자꾸 찰나찰나 화하니 화신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아! 이걸 털어주고 남이 없드러졌어도 일으켜서 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현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데도 보호해나가면 보현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리로 저리로 화해서 바뀌질 때에는 화신이요. 그러니 이름이 수차적으로 바뀌져요. 여러분이 부모를 만날 때는 자식이 되고 자식을 만날 때는 부모가 되고 아내를 만날 때는 남편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내 아내를 만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을 보면 밑바닥의 백지를 볼 수 있어야만이 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경 구절에 있는 것도 그 뜻을 헤아려서 실천공행을 해야지 부처님의 참 불제자라고 할 수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자식한테도 부드럽게 해주라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고, 평등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니까요.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한테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물과 산이 들어 아니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느니라."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속에는 뜻이 들어 있어요. 뭐냐? 아까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비었느니라. 비었으며 또는 마구니나 외도가 다 내 시자인 것입니다." 했 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그 말하고 어디가 똑같 으냐 그러겠습니까? 빈 것은 참나로 돌아가니까 비었고, 외도나 마구니가 전부 내 시자라고 한 것은 안 짝이 다,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 내 시자인 것입니다. 또 도반이고, 부처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고, 마구니도 따로 없고 외도도 따로 없어요. 언어가 붙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은 강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나라.' 한 뜻은, 예를 들어서 겁이면 겁대로 물을 담거나 또 커피를 담거나 뭐 음료를 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겁이 필요하겠죠. 그릇대

### 성인병(당뇨·고혈압) 예방

##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중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었습니다.

###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봉사와 범당봉사에 회향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사찰범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기동 가벽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